

제도가 그려안는 짚음

김지영

절실한 말

밀가루를 뒤집어쓰고 거리로 나왔다
슬픔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¹

¹ 안희연, 「소동」 부분,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창비, 2020), 12.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이 가라앉는 배를 며칠이나 속수무책으로 목도했다. 고통과 슬픔과 수치심으로 사회가 혼돈에 빠졌다. 희생자들을 향한 연민도, 모욕적 언사와 행동도 범람했다. 나는 그해 겨울이 돼서야 나를 뒤덮고 있던 무력감과 공포를 인지했고, 이를 딛고자 작금에 대하여 미술로써 기록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2015년 신진 작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기울어진 땅 평평한 바람』(2015, 오뉴월 이주현)이다. 사회에 세월호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어쩌면 조금 다른 이유로, 제도든 아니든 미술의 공간도 사정은 비슷했다. 동시대 재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미술에는 마땅한 의심이 따른다. 나도 의심했고, 의심하며, 의심할 것이다. 이후 몇 번의 신진 작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전시에 선정되어 작업을 소개했다. 그 와중에 만난 기회들이 귀했다. 잘하고 싶었다. 보는 이를 설득하고 싶어서다. ‘미술’과 ‘설득’이 썩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 내게 지금 절실한 말을 내뱉고 싶었다.

기대받는 짚음

신진 작가로서 작업이 소개되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기실 나는 전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기대할 ‘짚음’에 관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제도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천착하는 고민에서 무엇을 중점에 두고 말할 것인지 다시금 분명하게 짚는 계기였다. 동시에 작업을 전시 형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한 평소의 고민과 욕심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미술관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많은 수의 다양한 관객층을 만날 수 있다는 가망이 더해졌다. 그것은 설득을 욕심내는 나를 더 아등바등하게 했다.

신진 작가 지원 사업의 참여 작가이자, 참여하는 작가들을 응원하는 동료로서의 시간이 지났다. 관객으로서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보는 경험이 많아졌다. 문득 내가 어떤 종류의 ‘젊음’을 기대하고 있음을 느꼈다. 면구스럽게도 참여 작가일 때의 나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고민이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작가들이 저마다 작금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미술로써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신진이기에 더 고군분투하며 빛어냈을 장면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은 나를 설레게 한다.

지원과 공간의 규모가 큰 전시를 구성하는 경험은 신진 작가에게 도움이 된다. 물리적으로 넓은 공간에 작업을 구현해 내는 일은 그 자체로 작가에게 무척 매혹적인 일이 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전시를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그 것만으로도 큰 배움이다. 관객에게는 어떨까. 적어도 내게는, 전시 또는 작업의 규모가 크다는 사실이 그것만으로 특별히 매혹적이지 않다. 간혹 크기 자체가 필연적 형식이거나 구현된 상태가 경이로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기대감이 규모와 비례해 충족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상속된 경험과 변화된 저항의 방식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날 밤 나는 국회 앞에서 낮게 뛴 헬기들과 총 든 군인들을 목격했다. 모여든 사람들은 맨손으로 군인들을 막아섰다. 유일한 무기는 핸드폰이었다. 현장을 라이브로 송출하여 알리거나, 군인들이 탄 군용차량 안을 플래시로 비추었다. ‘여기 군인들이 있어요. 총이에요! 총!’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나마 막으려고 달려갔다.

한국 사회는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직선제 개헌이 되기 전까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걸쳐 계엄이 빈번하게 선포됐다. 윤석열의 계엄은 1979년 부마와 1980년 광주와 같은 고통의 기억을 소환했다. 당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계엄의 밤에 과거의 경험을 감각했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됐다. 123일 만이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곳곳이 광장이 되었다. 저항의 방식이 이명박과 박근혜 때의 광장과 달랐다. 최루액 물대포를 대비하던 때보다 준비물이 많아졌다. 손난로와 먹을 것 등을 서로 나누었다. 모여든 깃발도 저마다 손에 든 것도 각양각색이었다. 낮이고 밤이고 노래와 함께 색색의 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상식을 벗어나는 상상조차 우습게 넘어서는 일들이 거듭되던 시간을 그렇게 버텼다.

제도가 그려안는 세계

제도가 소개하는 ‘젊음’은 그 시대 제도의 관점을 드러낸다. 젊음의 시기는 이동하므로, 당면한 시대 상황도 달라진다. 제도는 그 시기에 미술의 어떤 면을 조명함으로써 조명하지 않은 것을 함께 나타낸다.

미술이 그러안는 세계는 너무 넓어서 나는 그것의 부분을 쟁을 수밖에 없다. 애석한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미술이 저항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작가들은 무언가를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 대상과 동기와 방식이 모두 다르다. 작업은 작가가 무엇에 저항하고 있는지, 무엇을 절실하다고 느끼는지, 어떻게 애쓰고 있는지 보여준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서 부단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간다. 나는 도처에 널린 비극에 무언가를 골똘히 도모하는 작가와, 기어코 자신의 방식으로 발화하는 작업에 매혹된다. 눈앞의 작업과 그것을 설명하는 말이 영 면 것보다 그 둘을 무관하게 여기는 것에 지루함을 느낀다. 새로움보다는 고유함에 마음이 간다.

저항의 기록은 더 다양해질 것이다. 나는 계엄 이후 광장의 모습을 보면서 믿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은 내게 사회의 구조적 폭력과 미술에서의 재현을 재고하도록 했고, 2024년 계엄 사태는 역사에 상속된 경험의 힘과 변화하는 저항의 방식을 재인식하게 했다. 지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작가들에게도 저마다 자신을 뒤흔든 순간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끊임없이 간신되는 고통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슬픔을 들여다보며 투쟁하고 있을 것이다.

요동치는 자신의 시간을 미술로써 통과하려는 시도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도가 작금에 무언가 다짐하는 작가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절실한 것을 그 자체로 존중하며, 그들이 유사한 시각적 깨감보다 자기 언어의 고유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과정에 충분히 치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제도가 기록하는 미술도 다양해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미술처럼, 미술에서 제도가 작가들의 세계를 더 넓고 섬세하게 그려안길 바란다.

김지영은 뜻밖의 사고처럼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의 배면에 자리한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라 드러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작가는 사회적 재난이 드러내는 세계의 사회·정치적 균열에 꾸준히 천착해 왔다. 그녀의 작업은 동시대를 역사적 시각으로 인지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적 사건을 들여다보고 개인과 사회의 연결된 감각을 환기한다.